

“車·선박·철강 등 제조업 내년 수출 감소할 것”

한은 호남권 제조업체 설문조사...60%가 “암울” 전망

미 대선 후 세계경제 불확실...“올 3분기 수출감소” 71%

호남권 제조업체의 내년 수출전망 60.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대선 결과 이후 세계 경제가 더욱 불확실해져 이 지역의 주력인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의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또 올 3분기도 이 지역 제조업체의 수출이 71.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6년 10~11월 중 호남권 지역경제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수출 전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 지역 제조업체의 응답 비중이 60.5%로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 비중(39.5%)을 크게 앞질렀다.

2017년 수출 여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업체와 52.6%가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다. 10~11월 호남권 경기는 3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생산과 수요 분야에서 보합을 나타낸 반면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제조업 생산은 석유정제 및 화학은 소폭 증가했으나 철강과 자동차는 감소했다. 가전은 보합수준을 보였다.

서비스업생산은 부동산·임대업이 소폭 증가한 반면 음식업과 운수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고가의 한정식, 일식집 등을 중심으로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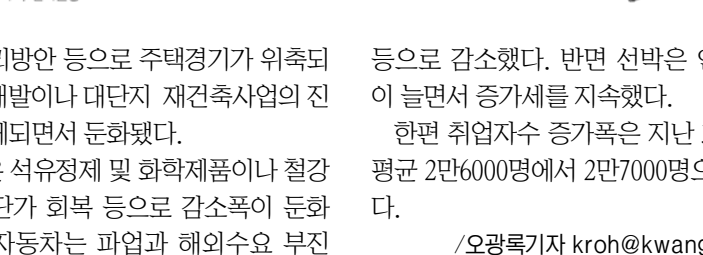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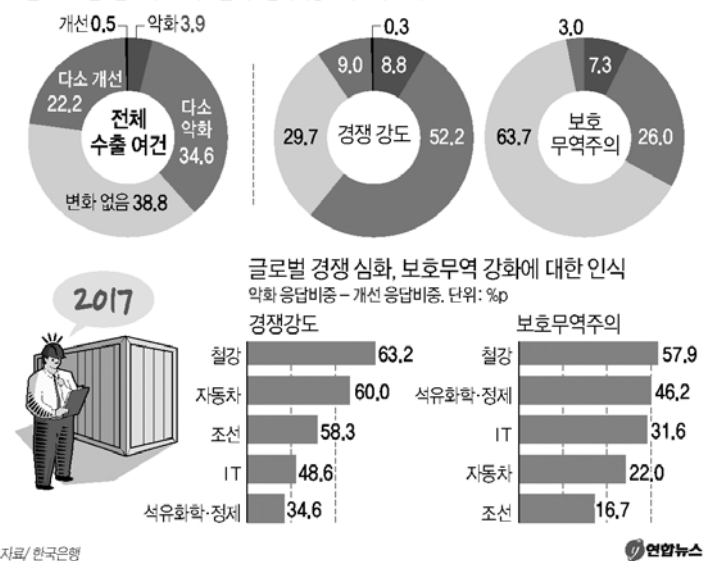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임대업은 내년 1월 아파트 대규모 신규 입주에 예상돼 있으나 주택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관망심리가 회복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요 분야에서 소비는 3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동차 판매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상반기 선수요 집중으로 감소세를 지속했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흥삼과 주류 등 고가 선물용품의 매출이 감소했다.

건설투자는 민간부문에서 정부의 가계

2017년 제조업 수출여건 전망

10월17~11월9일 전국 250개 제조업체 대상 인식조사, 단위: %



2017

자료/한국은행

연말뉴스

부채 관리방안 등으로 주택경기가 위축되고 택지개발이나 대단지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지체되면서 둔화됐다.

수출은 석유정제 및 화학제품이나 철강이 수출단가 회복 등으로 감소폭이 둔화됐으나 자동차는 파업과 해외수요 부진 등으로 감소했다. 반면 선박은 인도물량이 늘면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한편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 3분기 월평균 2만6000명에서 2만7000명으로 늘었다.

/오광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78.13 (+3.67)
- ↓ 금리 (국고채 3년) 1.76% (-0.05)
- ↓ 코스닥 593.05 (-4.77)
- ↓ 환율 (USD) 1170.40원 (-7.00)

공공기관, 내년 2만명 신규 채용

한전 1271명 등 올보다 1800명 늘어 사상 최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이 내년 사상 최대인 2만명의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28일 기획재정부가 321개 공공기관의 내년 신규 채용 계획을 집계한 결과 모두 1만9862명을 뽑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계획(1만8518명) 대비 1300여명, 2013년 수립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합리와 계획) 대비 1800여명 많은 수준이다.

공공기관 채용 규모는 2013년 1만 7323명, 2014년 1만7567명에서 2015년 1만893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3분기까지 1만4790명을 채용해 당초 계획(1만8518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로 내년 신규 채용인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1271명), 수력원자력(661명), 국민건강보험공단(1050

명), 서울대병원(873명), 기업은행(457명), 인천국제공항공사(228명), 농어촌공사(252명) 등이다.

정부는 인력 증원, 채용제도 개선, 정·현원차 점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년 신규채용이 계획에 맞게 이뤄지는지 기관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열고 내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취업 준비생들에게 제공한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으로 확산되는 직무능력중심(NCS) 채용제도를 경험해볼 수 있다. 한전과 기업은행 등 120여개 주요 공공기관 인사담당자가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연합뉴스

‘쏘울 EV’ 獨 전기차 월간판매 1위

누적 2만대 돌파 눈앞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쏘울 EV’가 지난달 독일의 전기차 시장에서 월간 판매 1위에 올랐다. 쏘울 EV는 글로벌 누적 판매 2만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8일 EAFO(European Alternative Fuels Observatory)에 따르면, 지난 10월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 쏘울 EV가 총 372대 판매돼 월간 베스트셀링카에 올랐다.

이어 BMW i3(274대)가 뒤를 이었고, 아우디 A3 e-트론(266대), 르노 조에(147대) 순이었다.

이와 BMW i3(274대)가 뒤를 이었고, 아우디 A3 e-트론(1272대), 테슬라 모델S(1230대), 기아차 쏘울EV(1229대) 등 3개 모델이 2위 자리를 놓고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고 있다.

이 기간(1~10월) 독일 전기차 시장에서는 총 1만9300대가 판매됐다. 쏘울EV는 기아차가 2014년 소형 CUV 쏘울을 기반으로 출시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차종을 제외하고 국산 친환경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간판 모델이다.

쏘울EV는 11월 중에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 2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첫해인 2014년 국내에서 2235대가 팔렸고, 2015년에는 연간 1만대 판매 고지를 넘어 총 1만865대가 팔렸으며, 올해는 10월까지 6868대를 파는 등 출시 후 누적판매가 올 10월말 기준 1만 9968대를 기록했다. 쏘울EV는 월 5백대 이상이 꾸준히 판매되는 만큼 이달중 2만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 EV는 주행거리, 성능은 물론 경쟁모델과 비교해 CUV 형태의 차체가 가진 넓은 실내 공간 또한 큰 강점”이라며 “내주 출시예정인 K7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친환경 SUV 니로,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친환경차 모델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쏘울 EV

쏘울EV는 11월 중에 글로벌 시장 누적 판매 2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시 첫해인 2014년 국내에서 2235대가 팔렸고, 2015년에는 연간 1만대 판매 고지를 넘어 총 1만865대가 팔렸으며, 올해는 10월까지 6868대를 파는 등 출시 후 누적판매가 올 10월말 기준 1만 9968대를 기록했다.

쏘울EV는 기아차가 2014년 소형 CUV 쏘울을 기반으로 출시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차종을 제외하고 국산 친환경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간판 모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 EV는 주행거리, 성능은 물론 경쟁모델과 비교해 CUV 형태의 차체가 가진 넓은 실내 공간 또한 큰 강점”이라며 “내주 출시예정인 K7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친환경 SUV 니로,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친환경차 모델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쏘울EV는 기아차가 2014년 소형 CUV 쏘울을 기반으로 출시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차종을 제외하고 국산 친환경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간판 모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 EV는 주행거리, 성능은 물론 경쟁모델과 비교해 CUV 형태의 차체가 가진 넓은 실내 공간 또한 큰 강점”이라며 “내주 출시예정인 K7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친환경 SUV 니로,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친환경차 모델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쏘울EV는 기아차가 2014년 소형 CUV 쏘울을 기반으로 출시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차종을 제외하고 국산 친환경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간판 모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 EV는 주행거리, 성능은 물론 경쟁모델과 비교해 CUV 형태의 차체가 가진 넓은 실내 공간 또한 큰 강점”이라며 “내주 출시예정인 K7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친환경 SUV 니로,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친환경차 모델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쏘울EV는 기아차가 2014년 소형 CUV 쏘울을 기반으로 출시한 전기차로, 하이브리드 차종을 제외하고 국산 친환경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린 간판 모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 EV는 주행거리, 성능은 물론 경쟁모델과 비교해 CUV 형태의 차체가 가진 넓은 실내 공간 또한 큰 강점”이라며 “내주 출시예정인 K7 하이브리드를 비롯해 친환경 SUV 니로, K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친환경차 모델 라인업을 무기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중소진흥공단 베트남 수출상담회 성과

광주·전남 7개 회사 무역사절단 파견... 104만달러 실적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중진공)는 지난 27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 광주전남 글로벌뷰처스클럽 7개 회원사로 결성한 베트남 무역사절단을 파견, 수출상담 104만달러와 MOU 체결 63만달러의 시장개척활동 성과를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무역사절단 참여 회사 중 (주)푸르마는 의료용 폐기물 처리기와 신규로 런칭한 질세정기로 15만달러 어치 샘플 공급을 요청받았다. 특히 의료용 폐기물 처리기의 경우 바이어가 베트남 총판권을 희망하고 있어 이번 납품이 현지 시장 진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해어토닉과 샴푸를 제조하는 (주)

아이멧은 바이어들로부터 현지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 제품 공급을 요청받아 43만4000달러 상당의 발주가 예상된다.

황창범 중진공 광주본부장은 “광주전남 글로벌뷰처스클럽 회원사들이 자발적으로 진출 유망 지역을 선정하고, 클럽 영문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해 적극적 참여를 발굴·선정하는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나타낸 것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수출로 활로를 모색하려는 내수 기업과 수출초보기업으로 구성된 광주전남 글로벌뷰처스클럽은 지난해 5월 결성 이후 수출실무교육, 수출중견기업의 멘토링 강연, 수출마케팅 연계지원 등 중진



지난 25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 광주전남 글로벌뷰처스클럽 회원사 관계자들이 베트남 바이어와 상담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제공>

공의 밀착 지원을 받아왔다. 지난 10월에는 회원사 확대결성식을 통해 회원사들 45개사로 확대, 운영 중이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10월 은행 대출 연체율 0.81%...0.01% ↑

지난달 국내 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이 전 달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28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1%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2013년 이후 10월 연체율이 매년 전월 대비 0.04~0.06%포인트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상승 폭이

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1.2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 중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2.57%로 0.10%포인트 뛰었고,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83%로 0.04%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한 달 전보다 0.01%포인트 떨어졌다.

/연합뉴스

주택건설협 주거환경개선 100가구 돌파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지회와 전남도가 올 초부터 추진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100가구째 실적을 기록했다.

2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지회에 따르면 29일 오전 화순군 동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A씨의 집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

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00호 주택 입주식을 한다.

광주·전남도지회 등은 취사, 난방, 화장실 사용이 불편했던 A씨의 집 안방과 거실, 주방, 화장실을 새로 마련해줬다.

올 초부터 총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추진된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10여곳을 연말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성기자bigkim@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 010-3605-5000

- | | | | | |
|---|---|--|--|--|
| <h3>신안, 비금도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4.5.6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팻섬, 비금도내에 있는 섬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 매매-7억, 분할매매 가능 | <h3>나주, 공산면 근린주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42평 건물24평 창고15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매매 - 5000만원 | <h3>장성, 동화면 전원주택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7680만원 | <h3>구례, 산동면 대형모텔</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 ■ 대지573평 건물719평 4층건물 ■ 지리산 온천지구내, 객실58개 ■ 리모델링 준비중 (4억이상) ■ 매매 - 협의, 감정14억 | <h3>담양, 금성면 토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 외 13필지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시세 33억, 매매 - 협의 |
|---|---|--|--|--|